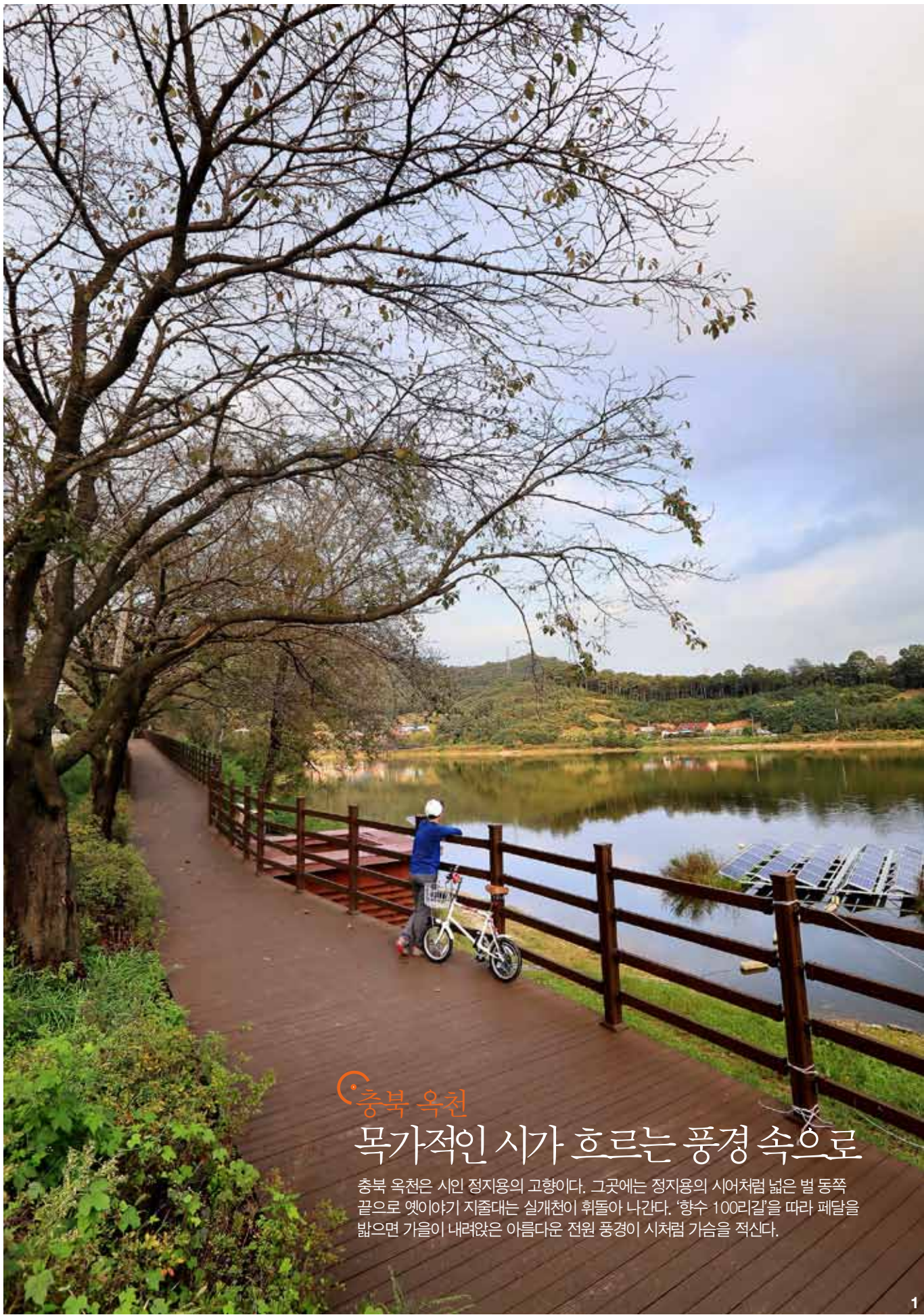


두 바퀴에 가을을 싣고 달리다

여행과 사색에 좋은 계절이다. 들관과 봉우리는 가을빛으로 물들고,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흐르고, 바다에서는 신선한 바람에 하얀 파도가 넘실댄다. 가을의 풍경은 쫓기는 듯한 일상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천연 치유제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자전거, 등산 등에 새삼 관심이 일고 있는 시기이다. 서정적인 가을 풍경 속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본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래주 기자





충북 옥천 목가적인 시가 흐르는 풍경 속으로

충북 옥천은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다. 그곳에는 정지용의 시처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자줏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 '향수 100리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면 가을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시처럼 가슴을 적신다.

1

‘비옥한 물줄기’. 충북 옥천(沃川)의 지명에 담긴 뜻이다. 가을이 깊어 가면 옥천에서는 금강의 푸른 물줄기가 산모퉁이를 돌고, 벼가 누렇게 익은 풍요로운 들판을 지나 대청호로 흘러든다. 산과 들, 강과 호수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넉넉하게 해 준다. 옥천의 가을을 만끽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명품 자전거 코스로 알려진 ‘향수 100리길’에 해답이 있다. 옥천역을 출발해 대청호와 금강을 따라 난 50.6km의 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을 발표하며 안남면사무소에서 금강휴게소에 이르는 여유로운 시골길 18.6km를 향수 100리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꼽았다.

향수 100리길은 경부선 열차가 정차하는 옥천역에서 시작된다. 기차역 바로 앞에는 옥천 유일의 자전거 대여소인 ‘사랑의 자전거’가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여소는 내년에 정지용 생가가 있는 구읍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옥천역을 출발해 옥천군에서 가장 변화한 구간을 지나 2.4km를 이동하면 가장 먼저 조그만 개천가에 자리한 정지용 생가에 닿는다. 생가는 지붕 누수로 이엉과 서까래가 썩어 현재 기둥과 서까래를 교체하고 이엉을 해체해 재설치하는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된 모습은 오는 11월 24일 이후에 볼 수 있다. 생가 옆에는 문학관이 있다. 로비에는 온화하고 단정한 시인의 생전 모습과 꼭 닮은 정지용의 밀랍인형이 의자에 앉아 있다. 전시관에는 삶과 문학을 엿볼 수 있는 자료와 시집, 산문집이 진열돼 있다. 영상실에서는 정지용의 삶과 문학 세계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다.



- 1 시문학공원 뒤편 교통저수지, 옥천 자전거길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2 옥천 자전거 여행 지도.
- 3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 옥천역 광장.
- 4 코스모스가 피어난 옥천의 들판.
- 5 정지용 시인 동상.
- 6 정지용 문학관.





1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장계관광지.
2 장계관광지에서 소나무 숲길을 걷는 방문객. 3 장계관광지를 방문한 자전거 여행자. 4 장계관광지에 설치된 사비.

대청호반 푸른 물빛이 유혹하는 길

정지용 생가에서 북쪽으로 조금 가면 정지용 시인을 주제로 하는 시문학공원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원 뒤편 언덕을 넘으면 교동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수면에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밭을 가는 농부, 얼룩빼기 황소, 까마귀가 올라앉은 홍시 등 정지용의 시를 내용으로 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나무 덩을 따라 산책하며 평온한 정경을 감상하기 좋다. 교동저수지 왼편 성왕로로 접어들면 도로 오른편에 자전거 전용 길이 조성돼 있다. 이곳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이 시작된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이어지며 길은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 평지를 지난다. 자전거 전용 길은 아내 없어서

도로를 달려야 하지만 자동차가 드문드문 지나서 마음은 여유롭다. 4km 정도를 이동했을까. 왼편으로 대청호 물줄기가 내비친다. 호반 길은 카다란 뱃나무가 늘어선 구간도 있어 운치가 있다. 37번 국도와 호반도로가 만나는 '신토불이 휴게소'에서 잠시 주변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휴게소에서 3km 정도를 이동하면 장계관광지이다.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싱그러운 산책로를 따라 정지용과 금강을 주제로 한 조형물과 사비가 들어선 곳이다. 입구에는 옥천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천향토전시관도 있다. 산책로를 거닐며 한가롭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다.



5 안남면 경율당 앞 들판.
6 도로 벽면에 그려진 자전거 여행자 그림. 7 옥천선사공원.

넓은 벌과 강줄기를 따라 달리다

다시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이어지고 안남 입구 삼가리를 지나 종마리 입구에서 경율당 방향으로 가면 넓은 들이 펼쳐진다. 낮은 봉우리가 주위를 두르고 한쪽에는 금강이 흘러간다. 정지용이 노래한 '넓은 벌'이 이곳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정적인 풍광이다. 벼가 누렇게 익은 황금빛 들판 사이를 달리는 맛이 그만이다. 길은 이제 금강 줄기를 따라간다. 산줄기 사이를 지나는 휘어진 강줄기를 따라 길이 휘돌며 시원스런 풍광을 선사한다. 안남면사무소-금강휴게소 구간을 왜 가장 아름답다고 했는지 고개가 꺾여진다. 금강휴게소에서 잠수교를 건너면 길은 옥천읍 방향으로 이어진다.

금강휴게소에서 약 10km 이동하면 옥천선사공원이다. 다양한 표정을 짓는 장승이 도열한 공원으로 들어서면 탁자식 고인돌인 석탄리 지석묘, 높이 약 2m의 선돌, 청동기시대 움집 등을 볼 수 있다. 한쪽에는 선사시대 석기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은 공간도 있다. 다시 구읍으로 접어들면 서정적인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육영수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1894년 축조된 건물을 육여사의 부친 육종관 씨가 1918년 매입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랑채, 내당, 사당, 별당 등 10여 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1974년 육여사 서거 이후 방치돼 오다 1999년 철거됐고, 2010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됐다.





전남 신안 증도

느려서 행복한 소금 섬을 주유하다

전남 신안은 '섬들의 고향'이다. 보석 같은 섬 1천4개가 서해 바다를 수놓고 있다. 이중에 백미를 뽑으려면 단연 증도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드넓게 펼쳐진 소금밭, 군침을 돌게 하는 음식 등이 방문객을 행복감에 젖게 한다.

1



2



전남 신안은 섬이 1천4개 있다 해서 '천사의 섬'으로 불린다. 이중 증도는 2012년과 2015년에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에서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슬로시티'라는 수식어는 증도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느껴지게 한다.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육지와 다른 섬을 연결하고 있는 것도 여행 목적지로서의 큰 장점이다.

최근 증도가 자전거 여행지로도 떠오르고 있다. 해안선과 염전, 다리, 선착장, 섬과 섬 사이에 썰물 때면 드러나는 노두 길을 지나는 전체 길이 42.7km의 자전거길을 천천히 달리며 증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안군은 증도를 비롯한 군내 12개 읍·면에 전체 길이 455km의 8개 코스 자전거길을 '천도천색 천리길'로 명명하고 자전거 여행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증도 자전거 여행은 출발지가 따로 없다. '모실길'이라 불리는 걸기 여행 겸 자전거 여행 코스가 섬을 한 바퀴 돌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모실'은 전라도 사투리로 '마을'을 뜻한다. 모실길은 '천년의 숲 길'(4.6km), '갯벌공원 길'(10.3km), '천일염 길'(10.8km), '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10km), '보물섬·순교자 발자취 길'(7km) 등 각기 다른 특징을 담은 이름으로 구분돼 불리고 있다.

- 1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태평염전.
- 2 태평염전 인근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남녀.
- 3 소금박물관.
- 4 판매점에 전시된 소금.



3



4



맑은 풍경 선사하는 해안길

‘천년의 숲 길’은 짚뽕어다리에서 신안갯벌센터·슬로시티센터가 있는 우전해변 남쪽 끝까지 이어진다. 짚뽕어다리는 짚뽕어가 살고 있는 갯벌 위로 놓인 길이 470m의 목교로, 다리의 교각을 짚뽕어가 뛰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방문객들은 다리를 건너며 갯벌 위를 뛰어다니는 짚뽕어를 관찰할 수 있다.

자전거를 끌고 짚뽕어다리를 건너 후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우전해변이 나타난다. 약 4km에 걸쳐 뻗어 있는 모래사장 뒤로는 섬 북쪽 상정봉에서 바라볼 때 그 모양이 한반도처럼 보이는 ‘한반도해송숲’이 떠받치고 있다. 해변 한쪽에는 지푸라기로 만든 파라솔이 설치돼 있어 동남아 휴양지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섬 북쪽 해안을 지나는 ‘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은 때 묻지 않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이다. 푸른 바다에 뜬 조그만 섬들과 가파른 기암과 해식애, 하트 모양 해변이 나타나 눈을 즐겁게 한다. 구간의 서쪽 끝에서는 중국 송·원대 해저유물이 발견된 것을 기념하는 비석도 볼 수 있다.



1, 2 전망대에서 바라본
염생식물원과 안내문.
3 염전에서 소금 밀기를
체험하는 방문객. 4 화도
노두길. 5 신안갯벌센터·
슬로시티센터. 6 해저유물
발견 기념비에서 바라본 풍경.



이색 풍광 펼쳐는 소금밭과 화도노두

증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은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태평염전이다. 이곳에서는 염전 안쪽 길을 제외하고 염전 바깥으로 난 길과 염생식물원 안으로 설치된 탐방로를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원래 ‘천일염 길’은 사육도에서 증도대교를 건너면 나타나는 관광안내소부터 남쪽 화도노두 앞까지 10.8km에 걸쳐 이어지지만 태평염전 지역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염전과 염생식물원, 소금박물관, 소금밭 전망대 등 주요 명소가 소금박물관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있기 때문이다. 소금박물관 옆으로 ‘미네랄이 가득한 생태천국’이란 글귀가 인상적인 태평염전 출입구를 들어서면 우선 오른쪽으로 초록빛과 붉은빛 웅덩이 깔린 듯한 염생식물원이 펼쳐진다. 국내 유일 천연 염전습지로 함초, 칠면초, 나문재 등 염생식물 70여종이 색색으로 군락을 이뤄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안쪽에 설치된 길이 220m 탐방로를 따라가면 짚뽕어, 칠게, 고동

등 갯벌 생물도 관찰할 수 있다.

염생식물원에서 비포장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면적 462만㎡의 염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염전 한쪽에서는 소금을 밀고 소금 봉우리를 쌓으며 미소를 함박 짓는 관광객 무리도 볼 수 있다. 길을 따라 드문드문 도열한 오래된 소금창고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태평염전 입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전망대는 필수 코스다. 그곳에서는 바둑판같은 소금밭에 세모 지붕 창고들이 늘어서 있고, 멀리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태평염전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5km 정도 이동하면 바다를 가로고 화도까지 이어진 노두(露頭, 암석이나 지층이 지표에 드러나 있는 곳)를 볼 수 있다. 하루 8시간만 모습을 드러내는 길이 1.2km의 노두를 지날 때면 갯벌에서 해산물을 잡고 캐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민의 삶을 엿볼 수 있다. 화도에는 장혁과 공효진이 주연한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도 있다.



1 섬진강을 끼고 달리는
자전거길. 2 최첨판택 전경.
3 최첨판 동상. 4 최첨판택
사랑채. 5, 6 박경리 문학관.

경남 하동 강줄기와 들판이 만났을 때

경남 하동은 언제 가도 매력적인 여행지이다. 지리산 줄기가 강을 만나 맑고 투명한 풍경을 그려낸다. 최근 개통된 하동 섬진강 자전거길을 달리면 온몸이 가을로 물드는 듯하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전북 임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시작해 전남 광양 배알도해수욕장까지 총 길이가 149km에 이른다.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전국 자전거길 중 자연미를 가장 잘 살린 구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길이다. 하지만 이 길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경남 하동을 지나지 않았다. 자전거길이 강 건너 광양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하동은 라이더들의 눈에 비치는 풍경으로만 존재했다. 최근 하동군이 악양삼거리에서 읍내삼거리까지 섬진강변 8.61km 구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 섬진강의 풍광을 감상하며 하동의 명소를 방문하기 좋은 길이 생긴 것이다. 자전거 마니아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긴 셈이다.

평사리의 너른 들녘을 질주하다

하동 자전거 여행은 최첨판택이 있는 악양면 평사리를 출발점

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인근에 하동에서는 유일하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평사드레 문화교류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여행에 나서기 전 소설 '토지'의 배경인 최첨판택을 둘러보도록 한다. 자연염색 의류와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면 오른쪽으로 최첨판택이 모습을 드러낸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듯한 행랑채와 안채, 별당, 뒷채, 사랑채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특히 사랑채 뒷마루에서는 평사리 넓은 들과 굽이치는 섬진강 줄기가 어우러지며 방문객의 시선을 빼앗는다. 최첨판택 맞은편에는 박경리의 삶과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박경리 문학관도 있다.

최첨판택에서 내려온 후 평사드레 문화교류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평사리 들녘을 향해 페달을 밟는다. 시멘트 포장길이지만 누렇게 익은 벼가 끝없이 펼쳐지며 시골길을



1 평사리 들판에 서 있는 부부송.
2 고즈넉한 풍경의 동정호.
3 토저문학제를 기념해 평사리 들판을 장식한 인형들.

자나는 기분이 들게 한다. 들녘 초입에는 고요한 풍광을 간직하고 있는 동정호가 있다. 조선 전기 학자 정여창과 김일손이 지리산 유람 마지막 날 뱃놀이를 하며 시를 지었다는 곳으로 조용하게 사색에 잠기기 좋은 풍경이다. 들판 한가운데 소설 속 길상과 서회를 상징하는 부부송을 지나면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난다. 들판 길을 더 달리고 싶다면 왼쪽으로, 섬진강을 향해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들판 끝에서 도로로 진입해 찾길을 조금 달리면 드디어 새로 만든 자전거길이 나타난다.

섬진강 물줄기 어깨동무하는 길

하동 섬진강 자전거길은 19번 국도를 따라 나 있다. 처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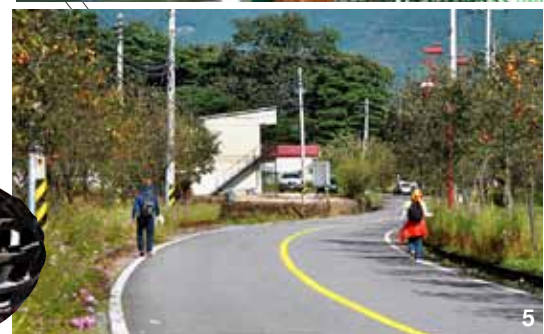
는 강변을 달리다가 도로 맞은편으로 옮기는 과정이 반복되는 길이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시멘트로 포장돼 있어 조금 오래 타면 엉덩이가 아파오지만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에 통증은 저만치 사라져 버린다. 섬진강과 산줄기가 합작한 모습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강물이 마른 듯 거의 보이지 않고 초록빛 습지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강줄기 사이로 드러난 새하얀 모래톱이 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매년 봄이면 매화나무가 분홍빛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꿈결 같은 풍경 속으로 안내한다. 돌담이 쉼터, 재첩 쉼터, 하동나루 쉼터 등 중간 중간 쉼터도 있어 강 풍경을 보며 쉬어갈 수 있다. 자전거길은 읍내삼거리를 지나 송림공원까지 이어진다. 노

송 900여 그루가 하늘을 가릴 듯 우거진 송림 앞으로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반짝이는 하얀 모래,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지며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낸다.

흥겹고 맛있는 화개장터

평사리에서 북쪽으로는 아직 자전거길이 없지만 자전거 여행을 즐기기에 나쁘지 않다. 화개장터까지는 약 8km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강변으로 대나무 숲과 차밭이 펼쳐지며 독특한 풍광을 연출한다. 하동녹차연구소 맞은편에 있는 두꺼비바위 쉼터에는 체녀를 구한 두꺼비에 관한 조형물과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다.

하동 자전거 여행은 화개장터에서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곳에서는 엿장수가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기타를 든 가수 조영남 동상이 미소를 함박 지으며 여행자를 맞는다. 갖가지 약초와 나물이 판매되는 장터에는 먹거리도 다양하다. 참게탕과 은어탕, 은어튀김, 재첩회덮밥을 비롯한 음식과 주전부리가 군침을 돌게 한다. 화개장터는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무대로 장터 옆에는 소설을 주제로 한 문학공원이 조성돼 있다. Y



4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이정표, 5 도로 풍경, 6 하동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잇는 육교, 7 소나무 그늘 시원스런 송림공원.



INFORMATION



자전거 여행은 느낌과 비움의 여정이다. 자전거에 올라 자연 속을 달리다 보면 일상의 잡념이 말끔히 사라지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행복감을 전한다. 자전거 여행을 위한 정보와 인근 명소를 소개한다.

자전거길 정보



옥천

옥천 향수 100리길
전체 구간 옥천역-정지웅생가-장계관광지(안내면)-안남면사무소-원당교(청성면)-금강휴게소(동이면)-옥천 선사공원-육영수 생가-옥천역
거리와 소요 시간 50.6km, 3시간 30분
팁 자전거 대여소 ‘사랑의 자전거’에서 자전거와 헬멧을 빌리면 코스 지도를 무료로 준다. 또 원하는 구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대여료는 1인용 1만5천 원, 2인용 3만 원이며 1시간 대여료는 1인용이 5천 원이다. 픽업 서비스는 1회 무료이며, 추가하면 1만 원을 받는다.

☎ 043-733-0816, 010-5505-4426



증도

신안 증도 모실길
전체 구간 관광안내소-태평염전-화도-신안갯벌센터-우전해변-짬뽕다라-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해저유물발굴 기념비-하트해변-관광안내소
거리와 소요 시간 42.7km, 3~4시간
팁 태평염전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1시간 대여료는 1인용 3천 원, 2인용 5천 원이며 1인용 1일 대여료는 2만 원이다.

☎ 061-275-1596



하동

하동 섬진강 자전거길
전체 구간 화개장터-하동녹차연구소-최참판댁-평사리공원-돌담이 켜터-재첩 켜터-하동나루 켜터-송림공원
거리와 소요 시간 20.9km, 1시간 20분
팁 평사드레 문화교류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1시간 대여료는 2천 원이다.

☎ 070-4146-1607

둘러볼 곳

옥천

둔주봉 전망대
안남면에 있는 둔주봉(384m)에 오르면 좌우가 거꾸로 된 한반도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다. 전망대까지는 안남면사무소에서 1.7km이며,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점촌고개에서는 700m 떨어져 있다.

옥천 향토전시관

선사시대 유물인 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검을 비롯해 삼국시대 유물과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각종 향토 민속자료 등이 전시된 곳으로 장계관광지 입구에 있다. 야외에는 연자방아, 지석, 연화좌대 등의 석조물도 전시돼 있다.

☎ 043-730-3418

증도



소금박물관

국내 현존하는 유일한 석조 소금창고로 근대문화유산 제361호로 등록돼 있다. 소금 관련 신화와 역사에서부터 어원,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천일염 관련 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소금으로 만든 스크린에 비치는 증도의 사계도 감상할 수 있다. 4~10월까지 천일염 생산과정을 체험하고 소금의 역사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소금 생산 방식을 관찰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061-275-0829, saltmuseum.org

하동



쌍계사

신라 성덕왕 21년(722) 의상의 제자인 삼법선사가 당나라 육조의 초상화를 가져와 꿈의 계시를 받고 호랑이의 인도로 찾아가 절을 지었다고 전한다. 진감국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과 쌍계사 부도 등 볼물 6점이 있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길이 아름답다. 특히 봄이면 10리에 걸쳐 벚꽃길이 이어지며 화려함의 극치를 선물한다.

가 볼 만한 자전거길



1 의암호 순환길

춘천 의암호 둘레로는 길이 25km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다. 한 바퀴 도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수려한 호수 풍경을 감상하고 호반에 있는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다. 의암댐, 김유정 문인비와 인어상, 의암호 스카이워크, 공지천 시민공원,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소양강 처녀상, 춘천 애니타운 등을 방문할 수 있다.



2 남한강 자전거길(운길산역~이포보)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는 남한강을 따라가는 약 34km 길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북한강철교를 건너 양수역, 신원역, 국수역을 지난 이후 줄곧 남한강을 감상하며 이동할 수 있다. 중앙선 폐선로에 있는 태널 8개를 지나는 이색체험도 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두물머리, 들꽃수목원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3 변산해변 자전거길(고사포해수욕장~격포항)

변산반도국립공원 서쪽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코스이다. 7천만 년 전에 생성된 적벽강, 채석강, 격포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다. 격포항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해질녘 격포항 해넘이공원에 가면 황홀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4 탄금호 자전거길

길이 약 40km의 탄금호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길이다. 평탄한 도로를 달리며 호수를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길에는 중앙탑, 충주고구려비, 충주댐, 세계무술공원, 탄금대 등이 있다. 약 3시간이 걸리는 조금 긴 코스지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5 상주 낙동강 자전거길(상주박물관~낙단보)

상주박물관을 출발해 경천대관광지, 상주자연가박물관, 상주보를 거쳐 낙단보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총 거리는 22km로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경천대관광지를 벗어나면 낙동강 물줄기를 끼고 달린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을 지나 경천섬 둘레길도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